

VOL. 09

2022 | 겨울

# 충북학누리



취목당

# 충북학누리

Vol.09 | 2022 겨울

## CONTENTS

- |    |   |    |    |   |    |
|----|---|----|----|---|----|
| 01 | 여는글<br>깊고 따뜻한 현대의 책 문화, 지역문화<br>김은숙(시인)                       | 3  | 04 | 충북의 농악·농요 이야기<br>삶의 고단함을 신명으로 풀어주는<br>농악과 농요<br>이상희(충북대 교양교육본부) | 18 |
| 02 | 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 공간<br>'오직 독서인'이었던 시인 김득신과 취묵당<br>조영임(중국 광서사범대학) | 7  | 05 | 충북 문화예술 여행<br>충북의 영화제<br>윤정용(문학평론가)                             | 28 |
| 03 | Discovery ChungBuk<br>청주 영화를 찾은 전문 극단들<br>임기현(충북학연구소장)        | 13 | 06 | 충북학연구소 소식   | 40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9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2. 12. 30.

# 깊고 따뜻한 현대의 책 문화, 지역문화

김은숙(시인, 상생충BOOK협의회 운영위원)

‘책방通通’, ‘다독다讀’, ‘상생충BOOK’.

34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후 현재 내 삶의 중심에 가장 큰 비중으로 묵직하게 자리잡은 책 관련 활동들이다.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책방通通’, ‘다독다讀’은 프로그램 특성과 지향을 담은 명명을 시작으로, 동네 책방과 유튜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획부터 작가 초대며 진행까지 내가 온전히 맡아서 꾸려가고 있다. 문화 운동이라고 거창한 의미까지는 부여할 없지만, 분명 경제적 도움은 안 되고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런 일은 왜 나는 몇 년째 계속하고 있을까?

작가가 작품집을 출간하면 작품집은 홀로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있는 세상 속으로 길을 떠난다. 작품이 독자와 어떻게 만나고, 독자들이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작가가 궁금해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그리 많지 않다. 출판사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리뷰, 관심 있는 지인의 친절한 인상비평 정도에 머물고 독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는 일부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정도이다. 더구나 지역작가가 어떤 자리에 초대되거나 조명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지역의 숨결과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낸 좋은 작품이 있어도 같은 지역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소외되어 있으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작가들이 독자와의 소통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자리, 나아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지역작가의 한 사람으로 내가 우선 그 일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더구나 나는 시간 많은 백수 아닌가?

다섯 번째 시집을 출간했던 2017년, 지역의 몇몇 도서관에 시집 몇 권을 기증하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책방에 들렀다가 대부분 책방이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때는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지역작가로서 무엇이건 해보자는 생각에 한 달에 두 번 저녁에 책방에서 시 읽기 모임을 6개월간 운영했다. 그 경험이 단초가 되었을까?

지역작가의 작품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독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방향성을 갖고 퇴직 이후 2018년부터 책방에서 책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이름을 ‘책방通通’이라 명명하고 매월 2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꾸준히 운영해 왔다. 작품을 깊이 읽고 성의를 다해 우리 지역작가와 작품을 환대하고 조명하는 자리는 작가에 따라 참석자 수는 달랐지만, 작가와 독자 양쪽 모두의 반응이 좋았다.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진행하는 전 과정이 즐겁고 뜻깊어서 몇 년째 진행 중이다.



도종환, 송진권, 김선영, 이안 등 지명도 있는 작가를 넘어 첫 작품집을 낸 생소한 작가까지, 박윤규, 류정환, 장문석 등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만이 아니라, 정한용, 장인수 등 충북과 연고가 있는 출향 작가도 초대했다.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문학 각 분야를 망라함은 물론 과학 에세이, 탐사 및 진상규명 도서까지 다루고, 종이책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때론 사람책을 만나는 휴먼북 콘서트까지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진행해왔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책방通通’ 운영은 진행과 멈춤이 반복되었고, 불규칙하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다. 결국 2020년 8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방송지원을 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미디어z>의 도움으로 매월 2회 작가를 초대하여, 한 시간 동안 작품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미디어북카페 ‘다독다讀’ 운영을 시작했다.

미디어북카페 ‘다독다讀’ 운영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정규 채널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과, 작품을 깊이 조명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려는 의도이다. 처음 시작한 2020년에는 충북과 연고가 있는 작가를 한정하여 초대했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대구, 춘천, 전주 등 곳곳의 작가들이 참여, 한 시간 동안 라이브로 작품집 이야기를 나눈다. 문학작품을 한 시간 동안이나 방송하다니, 그걸 누가 보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작품집 이야기를 하기에 한 시간도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에 독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직접 참여하여, 일방적 방송이면서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촬영된 영상은 시공간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 건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덧붙인다면 긴 진행 시간에 대한 염려와 달리 예상보다 작가와 독자들 모두 반응이 좋은 편이다.

사실 ‘책방通通’, ‘다독다讀’ 두 프로그램은 ‘상생충BOOK’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 문화의 시작은 독서에서 비롯된다는 믿음과 지역사회와 책이 함께 상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6년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상생충BOOK’운동은 충북지역 동네서점과 출판사, 작은 도서관, 작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개하는 시민 문화운동이다. 상생충BOOK협의회는 지역출판사에서 출간한 지역작가의 책 목록을 만들어 홍보하고, 동네 책방에서는 잘 보이는 위치에 지역작가 코너를 만들어 책을 비치, 독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분기별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작가와 출판사를 의미 있게 조명하며, 선정된 도서의 작가와 독자들이 소통하는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작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책방通通’, ‘다독다讀’에서도 ‘상생충BOOK’운동과 연계하여 분기별 우수도서 작가를 반드시 초대하여 작품집을 소개하고 있다.

‘상생충BOOK’운동 역시 책으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며 함께 길을 내는 일이니, 현재 내 생활은 ‘책방通通’, ‘다독다讀’, ‘상생충BOOK’세 기둥이 축이 되어 서로 연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방通通’, ‘다독다讀’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까지 여러 가지를 숙고했으나 진행을 거듭하며 그 의미를 더 새기게 된다. 먼저 작가와 작품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일 자체가 오롯이 필요하고도 의미 있다. 두 번째는 작가와 독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작품집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중요한 과정이 된다. 세 번째는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며 작가와 독자가 서로의 존재 의미를 인식하고 새기게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응답하는 독자, 달리 말하면 문화예술 소비자들의 가치를 작가들이 새삼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반의 과정이 누적될수록 서로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가 달라지며 책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넘어서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따뜻한 지평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단순한 책 나눔의 자리가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함께 예술가와 예술 향유자의 거리와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물음을 마주하게 되는 요즈음, 책을 매개로 우리만의 깊이 있고 따뜻한 책 문화, 나아가 지역문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책방通通’에 자주 참석한 사람은 혼자 혹은 함께 시 낭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리 내서 함께 시 읽는 마법 같은 경험이 일상이 되는 도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꺼이 마음길을 내는 도시, 책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환대하는 도시, 책의 숲을 함께 걸으며, 더불어 깊고 따뜻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 ‘오직 독서인’이었던 시인 김득신과 취묵당(醉默堂)

조영임(중국 광서사범대학)



“재주가 남만 못하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이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無以才不猶人自畫也, 莫魯於我, 終亦有成, 在勉強而已.”)

재주가 없다고, 어리석고 둔하다고,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 힘쓰고 또 힘쓰면 결국 성취하는 바가 있게 된다. 믿지 못하겠는가. 그 산 증인이 바로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이다. 인훈한 위의 글은 이현석(李玄錫)이 쓴 <김득신 묘갈명>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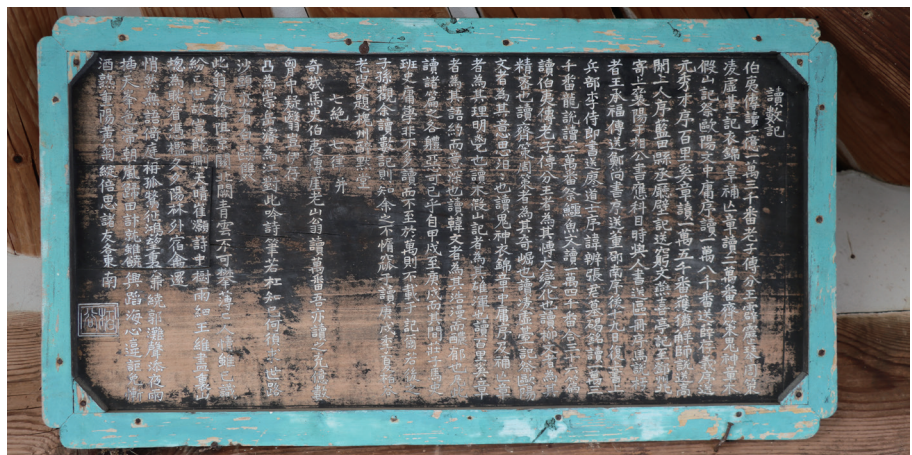
김득신은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시인이다. 아버지는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치(緻)이며, 어머니는 사천목씨(泗川睦氏)로 첨(詹)의 따님이다. 그의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이다. 백곡은 그의 세거지인 목천의 백전리(柏田里)에서 탄 것이다. 고조부인 김석(金錫)이 사화를 피해 괴산으로 이거하게 되면서 그의 후손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득신은 한국한시사에서 ‘맑고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으로 이름이 높다. 당시 한문 사대가인 이식(李植)으로부터 “그대의 시문이 당대 제일(今見詩與文, 可爲當今之第一)”이라는 평을 들음으로써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득신은 타고난 천재로 시를 쓴 시인이기보다는 후천적인 단련으로 좋은 시를 남긴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 열 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십구사략(十九史略)>의 첫 단락이 26자에 불과하였지만 사흘을 배우고도 구두를 떼지 못했다. 스무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 한 편을 지어 올리자, 아버지는 “더 노력해라. 공부란 꼭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격려했다.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간 뒤에도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남들과 이야기할 때, 언제나 글을 외우지 않는 적이 없었다. 밤에 잘 때도 늘 머리맡에 책을 두고 잤다. 잠에서 깨어 가만히 손으로 책을 문지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독서광이었고, 애서가였다.

홍한주의 <지수염필(智水拈筆)>에 김득신에 관한 다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김득신은 지혜가 부족하고 재주가 몹시 노둔했는데도 외위 읽기를 부지런히 했다. 독서록이 있었는데 천 번을 읽지 않은 것은 기록에 올리지도 않았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 <백이전> 같은 것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 한번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 집을 지나가는데,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글이 아주 익숙한데, 무슨 글인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랬더니 말고삐를 끌던 하인이 올려다보며 “이것은 나오리가 평생 읽으신 것이니 쇠네도 알겠습니까요, 나오리가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요?” 했다. 김득신은 그제서야 그 글이 <백이전>임을 알았다. 그 노둔함이 이와 같았다. 하지만 만년에는 시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



위에서 말한 독서록은 다름 아닌 <독수기(讀數記)>이다. 이것은 그의 나이 31세 때부터 67세 때까지 36년 동안 고문(古文)을 독파한 횡수를 적은 것인데, 만 번 이하로 읽은 것은 아예 적지도 않았다. 『장자』·『사기』·『한서』·『대학』·『중용』은 자주 읽었지만 만 번이 되지 않았기에 실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었다고 하는데, 1억은 지금의 10만에 해당된다. 그러니 실제 읽은 횡수는 11만 3천 번이다. 아무리 헤아려도 11만 3천 번을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것을 자부해서 자신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 했다.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 길을 가다 우연히 들은 <백이전>의 구절을 기억하지 못할까.



또 이런 일화도 전해진다.

한번은 한식날 말을 타고 들 밖으로 나갔다가 도중에 5언시 한 구절을 얻었다. 그 구절은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었다. 마땅한 대구를 찾지 못해 끄꿍대자, 말고삐를 잡고 가던 하인이 연유를 물었다. 마땅한 대구를 찾지 못해 그러다고 하니, 하인 녀석이 ‘도중속모춘(途中屬暮春)’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니, 도중에 늦은 봄을 맞이하였네.”라는 뜻이다. 깜짝 놀란 김득신은 얼른 말에서 내려서 “네 재주가 나보다 나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 말구종을 들겠다.”라고 하고는 하인 녀석더러 말을 타게 했다. 하인은 씩 웃으며, 사실은 이 구절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나오리가 날마다 외우시던 당시(唐詩)가 아니냐고 했다. “아 참 그렇지!”하며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머리가 나쁜 것을 알아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 아예 통째로 외우기까지 하였다. 또 좋아하는 시는 외우고 또 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지은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했다. 백곡과 망년지우를 맺었던 홍만종은 “백곡 김득신은 재품이 몹시 노둔했는데 많은 독서로써 밀바탕을 튼튼히 하여 노둔함을 벗어나 재주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물평을 한 바 있다.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둔재로 손꼽히는 김득신은 자신의 둔재를 한탄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결국에는 조선 중기에 빛나는 큰 시인이 될 수 있었다.

다음의 시는 김득신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용호(龍湖)」이다.

### 용호(龍湖)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잠기고

가을 산에 희뿌연 비 내리네

저문 강에 풍랑 일자

어부 급히 배 돌리네.

古木寒雲裏，秋山白雨邊。

暮江風浪起，漁子急回船。

홍만종의 『소화시평』에는 “이 시는 일시에 인구에 회자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또 효종이 이 시를 보고서 “당음(唐音) 속에 넣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했다. 실제 시골 글방에는 당음에 넣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의 성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효종이 화공에게 이 시의 풍경을 병풍에 그리게 하였다는데, 이 시에는 당풍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시중유화(詩中有畫)’의 회화미가 돋보인다. 다음의 작품에도 전형적인 당풍(唐風)의 풍격이 느껴진다.



### 전가(田家)

울타리 헤어져 늙은이는 개를 꾸짖고

아이 불러 일찌감치 문 닫게 하네

어젯밤 눈 속의 발자국 보니

틀림없이 호랑이가 마을을 지나갔으리

籬弊翁嗔狗，呼童早閉門。

昨夜雪中跡，分明虎過村。

눈 내린 시골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고 짙진하게 그려낸 수작이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헤진 울타리를 보고 부아가 난 시골 노인이 애먼 개를 보고 꾸짖는다. 그리고 아이더러 일찌 문을 닫으라고 한다. 그 이유가 전결구에 드러나 있다. 눈 속의 발자국을 보니 산중호걸이 지나갔기 때문이란단. 일찍이 이 작품을 두고 임방의 『수촌만록(水村漫錄)』에서는 “古木寒雲裏의 시보다 정경묘사가 더 낫다.”고 평하였다.

김득신은 여러 차례 과거 낙방의 고배를 맛보다가 59세의 나이에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는 것으로 일생의 숙원을 이루었다. 그야말로 대기만성형인 셈이다. 이때의 감회를 “한유의 글과 사마천의 사기를 천 번이나 읽었거늘 이제야 겨우 진사과에 붙었네.”라고 술회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흥천 현감과 정선 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대신들의 “김득신은 시인일 뿐, 일에는 소활해서 적임자가 아니다.”는 의견으로 부임하지 못하였고, 사헌부 장령에 두 번이나 제수 되었으나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김득신은 과거 급제한 그즈음에 괴산 능촌 방아재로 가서 선산이 있는 개향산 자락에 ‘취묵당(醉默堂)’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그가 당호를 ‘취묵(醉默)’으로 한 것은, 취하더라도 침묵해야 한다는 뜻을 잊지 않고자 함이었다. 취하여도 침묵하고 깨어서도 침묵한다면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 몸이 재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백곡이 ‘취묵당’이라 명명하고 구당 박장원(朴長遠, 1612~1671)에게 서(序)를 부탁하자, “우리 두 사람이 조만간 서로 만나 이 집 위에서 술잔을 들어 취하고, 계산(溪山)의 기이함을 보고 사람과 친한 물고기과 새를 살피면서 호천(昊天)에서 유유자적하는 취향을 이야기한다면, 또한 어찌

끝내 침묵함을 얻는데 그치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서문을 써서 주었다. 박장원은 ‘취묵당’에서 침묵도 좋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하였다. 목천에는 박장원, 청주에는 홍석기라고 이를 만큼 구당과 만주는 절친한 사이였으며, 이 두 시인은 모두 백곡 김득신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윤선거(尹宣擧, 1610~1669) 역시 취묵당이 건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산의 왼쪽에 세 칸의 서재를 신축하여 취묵당이라 하고 여생을 보낼 계획을 삼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네.”라며 격려했다. 임상원(任相元, 1638~1697)도 취묵당에서 가을 흥취를 담은 시문을 부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시로 표현한 바 있다.

취묵당을 소재로 한 다음의 시가 있어 소개해 본다.

### 취묵당에서 우연히 읊다(醉默堂偶吟)

물빛은 비 개인 뒤에 곱고  
산빛은 빗속에 산뜻하여라  
진경을 그리기 참으로 쉽지 않다만  
내 어찌 시 짓기 그만두랴  
水光晴后艶, 山色雨中奇.  
驚核誠非易, 吾寧廢賦詩.

취묵당을 둘러싼 자연 풍광이 참으로 진경이어서 시로 표현하기가 몹시 어려웠던 모양이다.

‘비가 막 개인 강물 빛은 곱디곱고, 비 내리는 산빛은 산뜻한데, 대체 이런 풍경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글자를 배열할까’하는 고심의 흔적이 결국에 드러나 있다. 시 짓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한다. 김득신은 고음(苦吟)의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시벽(詩癖)」에는 “이 사람 성벽이 시 짓기를 좋아하여/시 지을 때면 매양 글자 놓기 망설이네. 끝내 의심 없어야만 비로소 통쾌하니/일생의 이 괴로움 알아줄 이 그 누구랴”라 하였다. 시 짓기를 좋아하는 타고난 시인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대로 놓여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쳤다. 인용한 위의 시에서도 고음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 취묵당에 돌아오다(還醉默堂)

이제 들국화가 향기로운 때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오니 흥취가 더욱 유장하네.  
 호수의 빛과 산 경치는 천연의 자태인데  
 어찌 얼굴 가득 꾸민 서시와 같으랴!  
 時序今當野菊香, 歸來鄉國興偏長.  
 湖光山色天然態, 何似西施滿面粧.

김득신이 취묵당에 돌아온 때는 바야흐로 가을. 활짝 핀 국화가 고향의 흥취를 더하고, 취묵당 주위의 호수와 산은 자연이 빚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시인은, 중국의 4대 미녀로 불리는 서시(西施)조차도 천연의 아름다운 취묵당만 못할 것이라 하였다. 취묵당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득신은 취묵당을 지은 그 이듬해에 구불구불 긴 강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한 칸짜리 초당을 열고, 그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하였다. 김득신의 다른 시편에 “괴협에 봄기운이 돌아 홀로 돌아오니, 시골 흥취가 느긋하여 막을 수 없네(春生槐峽獨歸來, 野興悠悠不可裁)”라든가, “괴강에 머문 지 4년, 철 따라 경물로 시를 지으니 시주머니 넉넉하네(槐江泥滯四年強, 時物供詩富錦囊)”라든가 “꿈속의 냇도 개향산의 빼어남을 알아, 울긋불긋한 벼랑을 밤마다 올라가네(夢魂亦識香山勝, 翠壁丹崖夜夜登)”라든가, “개향산 입구에 띠집을 지으니, 밤낮으로 창 사이로 푸른 남기가 스며드네(開香山口結茅庵, 日夜牕間透翠嵐)”라는 표현을 통해 취묵당과 초당의 풍경을 즐기며 그 속에서 흡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득신은 1684년 81세의 일기로 취묵당에서 생을 마쳤다.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노년했지만 그 노년함을 딛고 독서광이 되어 걸출한 조선중기의 시인으로 거듭난 백곡 김득신의 자취가 취묵당에 오롯이 전하고 있다. 시인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독수기」는 지나는 시인묵객으로 하여금 독서의 힘을 새삼 느끼게 한다. 취묵당 앞으로 흐르는 맑은 물줄기야말로 백곡이 1억 1만 3천 번 읽었던 백이열전의 또 다른 현현인지 모를 일이다.

백곡 김득신은 증평군이 선양하는 대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다. 우리 지역에 이만한 걸출한 시인이 있었음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백곡의 아버지 김치가 마을을 열었다는 울리(밤티)에 ‘김득신문학공원’이 들어서고, ‘김득신문학길’이 새로 났다. 최근에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이 개관하였다. 둔재였지만 무한히 노력하고, 오로지 독서에 몰두하여 끝내 이름을 얻은 김득신의 삶과 그가 남긴 주옥같은 시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깨우침을 주고 있다. 한 줄, 한 편의 글이라도 부지런히 읽으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다.

## 청주 액좌를 찾은 전문극단들

임기현(충북학연구소장)

청주 유일의 극장 액좌(1916)가 설립된 후 이곳을 맨 처음 찾은 외지 전문극단 관련 기록은 『매일신보』 1917년 2월 11일자에 따르면 “액좌극장 건축 이후로 내지의 신구극좌며 경성광교예기조합에서 내연케 되어 일야에 수백 명이 액좌에 모였다”라는 것이다. 내지의 신구극좌라고 함은 일본의 신파극과 가부키(歌舞伎)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해 일찍부터 한국에 건너온 신구극 단체가 액좌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20,30년대 언론지상에서 일본 극단의 청주 공연 기록이 네 차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일본 극단이 액좌를 찾았을 것으로 확인된다.

기록상으로 국내 연희집단 중 액좌를 찾은 최초의 단체가 ‘광교예기조합’으로 드러나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아 연속 대관을 했다는 기록도 함께 나온다. 이 단체는 우리 전통 가무를 선보이거나 때때로 신파극도 무대에 올린 연예집단이었다. 좀 더 구체적인 단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1919년 8월 28일부터 5일간이나 진행된 신청일 일행의 방문이었다. ‘청주에 신파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매일신보』 충북지국 후원으로 평양 조선신구합동연극 신청일 일행이 액좌를 찾아 관람객 남녀노소가 물 밀리듯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 역시 평양에 소재를 둔, 역시 신파극과 함께 줄타기와 같은 전통연희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구사했던 유랑극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1923년까지는 액좌에서 행해진 외래 극단의 방문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는 이 무렵 액좌의 이전 신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1924년부터는 외지 극단의 방문이 활발한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외래 극단 방문 기록(1924~1935)	
연도	내용
1924.6.26.~	김소랑이 이끄는 <취성좌(聚星座)> 일행 10여 명의 활동연쇄극
1924.7.28.~30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유치원 필요성을 홍보, 조선·동아 지국 후원으로 경성의 <안동가극단>을 초청
1924.9.17	시대일보 지국에서 <신파예술단> 일행 초청, 신파연극을 공연하여 성황
1926.1.24.~26	동아 등 4지국 후원으로, 극계 명성인 <현성완 일행> 공연
1928. 3월 말	신극 <취성좌> 김소랑 일행 공연
1929.1.23.~25.	동아지국에서 극계 명성이 자자한 <동반예술단> 초청 공연
1929.8.8.~9	조선지국 후원 <형제좌(兄弟座)> 현성완 일행 공연
1929.11.4.~8	동아지국 후원 <지성극단(志星劇團)> 김일산 일행 공연
1929.2.25.	동아지국에서 판소리명창 <이동백 일행> 초청, 대만원 공연
1929.12.5.~6	동아 등 3지국 후원 무용계 명성 <배구자 무용가극단> 가극 공연
1930.2.25.~29	동아지국에서 각지 순회 중인 사진 연쇄극 <아성극단(亞星劇團)>을 맞아 성황리 공연
1930.10.16.~18	동아지국에서 판소리 명창 <이동백 일행> 초청 공연(박팔괘 등과 합동 공연)
1931.2.20.~21	영운리 야학회 주최, 동아지국 후원으로 야학회 경비 조달을 위해 <낭예좌> 공연
1931.8.5.~6	청주신문기자단 후원, 명성 높은 <나카무라하천 일좌(中村歌扇一座)>의 가부키 및 고전극 공연
1931.11.16.~22.	연극계 권위로 결합 <조선연극사(朝鮮研劇舍)>의 남선 순회 중 청주 공연
1932.2.3.~4	동아지국 주최, 일본 동경의 가극단, <라이온오페라좌(ライオン歌劇團)> 일행 40여 명 초청 공연
1932.5.24.~26	동아지국, <동북극단> 초청 3일간 성황리 공연
1932.12.14.~18.	동아지국,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신극시연무대(新劇試演舞隊)> 초청 닷새 공연
1934.6.22	동아지국, 경성 <신무대> 초청 공연
1934.10.24.~25	부산일보지국 후원, 검극계(劍劇界)의 왕자 <이무라요시오 일좌(伊村義雄 一座)> 초청 공연
1934.11.25.~26	여배우(女優若手) <카타오카 연송 일행(片岡延松一行)> 20여 명 화려한 가부키 공연
1935.2.4.~6	동아지국에서 설을 맞아 <이동백 일행>의 명창대회 개최

1917년부터 시작된 외부에서 들어온 극 관련 공연은 1935년을 시점으로 거의 끝이 나 있다. 서울에서는 1931년 창단된 극예술연구회를 시작으로 1930년대 후반까지 현대극이 실험되고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위축기를 맞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의 초청이나 후원에 ‘독자 위안’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의 지극 주최와 후원으로 관여한 것이 많다. 볼거리가 귀했던 당시 언론사에서는 구독자를 유지·확보하는 수단으로 공연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로서는 언론사가 문화의 선도 역할을 했고, 통신과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네트워크 덕분에 각종 공연 섭외가 유리했던 점, 무엇보다 공연을 알릴 매체를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언론 자료를 통해 실제로 영화를 찾은 외지 전문 극단(단체) 중 이름이 확인된 것은 1910년대의 <광고예기조합>을 비롯하여 총 21개가 된다. 한국 단체가 17개, 일본 단체가 4개다. 1920년대 이후로 국한하면 한국 단체로는 <취성좌>를 포함한 14개 극단과 종교제로 최고 판소리명창 소리를 들었던 <이동백 일행>의 방문이 세 차례나 있었다. 일본의 극단(가극단) 4개 중 3개는 가부키 구극이었고, 신극 계열의 가극단 라이온오페라좌는 일행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큰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외부 연극단체의 공연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극단(단체) 앞에 ‘극계에서 명성이 자자한’과 같은 수식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연극사에서는 이들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10년대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수입을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했던 상업극단들로 규정할 수 있다.

연극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취성좌>, <형제좌>, <신무대>, <조선연극사> 정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취성좌>는 영화를 두 번이나 찾았던 극단으로, 1928년의 봄 공연 시에는 공연이 없는 오후 시간에 청주 무심천운동장에서 청주공립농업학교 팀과 축구시합을 벌인 기록도 나온다. 희곡사가 유민영에 따르면 이 <취성좌>는 <혁신단>과 함께 대표적인 신파극단 단체로서 1920년대 본격적인 소인극 붐과 함께 신파극단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지만, 김소랑 부부 중심의 <취성좌>만큼은 유랑극단으로 떠돌며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갔으며, 주로 일본 신파극을 재탕했지만 1926년을 경계로 관객인 지방 청년들과 만나면서 점차 민족의식도 갖추어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소랑 일행은 또한, 1924년 청주에 와서 공연 할 때 활동연쇄극을 선보였다. 활동연쇄극은 연극에다가 무대 위에서는 행동화하기 어려운 야외 장면을 영화로 삽입한 것인데, 신파극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쇄극은 1930년에 영화를 찾은 <아성극단> 등에 의해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 11월에 앵좌를 찾았던 <조선연극사> 역시 <취성좌> 해체(1929.12.) 이후 그 단원이었던 지두한이 단원들을 이끌고 나와 조직한 극단으로 <취성좌>보다 일보 진전한 단체로, 일본색 탈피를 내걸고 창작극 공연(연극의 자립)을 우선으로 삼아 신파극의 토착화에 기여한 단체였다. 역시 1930년대 초반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대중극단으로 규정되고 있다. 일찍이 1926년에서부터 1929년까지 청주 앵좌를 두 번이나 방문했던 현성완의 <형제좌> 역시 당시를 대표했던 신파극단의 하나였다. 이 <형제좌>에서도 연쇄극을 많이 공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4년 앵좌를 찾은 <신무대>는 1930년대부터 서울의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1932년부터는 지방순회 공연으로 신파연극을 했던 대중(상업) 극단이었다.

가극 형태의 극양식이 공연된 사실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 가극 양식은 1920년대의 청주지역의 소인극에서도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 가극은 노래와 춤과 촌극, 비극이 한데 어우러진 극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가극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단체는 무용과 음악, 연기에 능해 만능 탤런트란 평을 들었던 배구자가 이끈 단체였다. 이 <배구자가극단>은 1929년 12월에 앵좌를 찾았다. 이러한 가극 양식이 강점기 때 한국인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았던 이유를, 유민영은 “한국인들이 원래 가무를 좋아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가무를 더욱 즐겨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 1929년 당시 배구자(1905~2003) 가극단의 공연 장면(『동아일보』, 1929. 9. 18.)



또한, 우리 전통연희에 해당하는 판소리공연도 주목할 수 있는데, 당대 최고의 판소리 명창 소리를 들었던 이동백 일행이 액자를 세 번이나 찾은 것으로 확인된다.

1930년 10월 공연에서는 청주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으로 국창 반열에 올랐던 박팔괘와 무대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고, 1935년 2월의 청주 공연 기록에서는 출연자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동백을 포함해 정정렬 오태석, 한성준, 신금홍, 김유영, 변진홍, 김소희 등으로 모두 당대 최고의 판소리꾼들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 공연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판소리공연도 하고 창극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성악연구회 시절 이동백은 창극단체를 결성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주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1935년 공연은 창극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창극은 전통 판소리와 달리 무대를 신극에 견줄 만큼 화려하고 '리얼하게' 꾸민 채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연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통연희의 화려한 변모에 청주 시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청주 액자를 세 차례나 찾아 공연한 최고의 소리꾼 이동백(1866~1949), 「조선일보」, 1939. 5. 21

아쉽게도 신문자료에서는 대부분 외래 극단의 공연 제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지 않아 그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언론에서는 이들의 공연을 가극이나 활동연쇄극, 판소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극, 신파극, 신파연극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청주 사람들이 액자무대에서 가장 많이 접한 극양식은 신파적 요소를 띤 근대극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문 기사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간이나 지속된 공연에 대해 한결같이 '만석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1910년대부터 일찍이 시작된 이러한 극양식의 전문단체의 지방 공연은 192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 연극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 근대극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역 연극 나아가 한국 연극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면면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삶의 고단함을 신명으로 풀어주는 농악과 농요

이상희(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농악과 농요는 삶을 풍요롭게 해준 중요한 문화이다. 품이 많이 드는 고된 농사일을 함께 버텨내기 위해 우리네는 두레나 품앗이 등을 조직했다. 농민의 자치조직은 함께 일만 한 것은 아니다.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수확을 풍요롭게 할 음악과 노래까지 곁들였다. 바로 농악과 농요이다. 농악과 농요는 고된 농사일 내내 맘을 즐겁게 하고, 신명을 돌아 일을 끝까지 해내게 한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가락과 노래로 흥을 돋우며 내년을 기약한다.

저마다의 특성과 저마다의 마음을 담은 가락과 노래는 그들의 농악과 농요를 생성했다. ‘풍장’ ‘풍물’ 등으로 불린 ‘농악’과 농요의 지역특성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어졌다. 이런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던 농악과 농요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기계화된 작업 방식뿐만 이웃사촌의 의미도, 품앗이의 의미도, 세월에 따라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뤘고 흘러보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민속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은 충북의 농악과 충북농요 몇을 소개한다.



▲ 전통을 이어가는 청소년들-2016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여한 괴산군 학생들 모습

**발 맞추고  
맘 맞추는 농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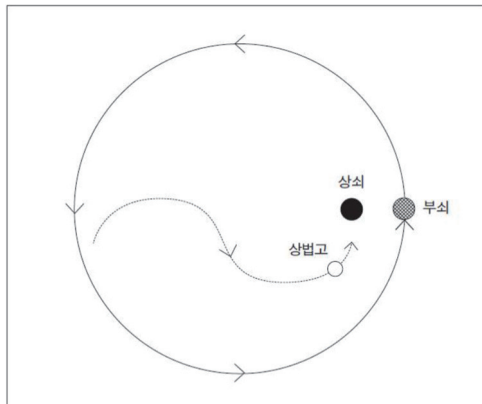
농경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농악 없는 농사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을마다 농악을 치며 고된 농사일을 함께 했다. 농사 중 으뜸은 벼농사였다.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 농악이 발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나라 농악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가락과 움직임, 형태를 간직하며 발전했다. 충북은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 발전했다.

충북의 농악과 농요는 무엇이 있을까? 남북으로 긴 충청북도는 농악도 남북으로 나뉜다. 단양·제천·청주·음성을 중심으로 한 북부농악, 진천·괴산·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농악, 보은·옥천·영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농악이다. 지역으로는 제천 두학 농악, 보은 복실 농악, 청주 강서 농악 등이 유명하다.

이중 청주 농악을 소개한다. 국토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여타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 가운데 청주는 그 고유성을 지닐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래서 청주 농악은 충청도지방 농악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가락이 단순하고, 투박한 춤사위의 움직임이 크고 독특한 점이 특색이다. 청주농악은 전국 행사에 십여 차례 참여해 수상할 정도로 신명난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2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청주농악은 충북의 최대 곡창 지역인 미호(美湖)평야에서 형성됐다. 지금의 청주농악은 미호평야를 중심으로 발달한 농악을 집대성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린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사라질 뻔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강서 지역과 지동, 신촌 지역 사람들은 옛 가락을 잊지 않고 지켰다. 그 덕에 옛 청원군 강내면의 '신촌농악'과 강서면의 '지동농악'을 통합한 청원군농악이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었다. 이 농악은 1987년 지동과 신촌이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지금은 '청주농악'으로 부른다.

청주농악은 예부터 정월 초에 걸립굿에서 고사를 담당하고, 여름에는 두레 굿에서 길놀이를 하고, 백중날에도 풍물을 치며, 한 해 모든 일에 청주농악이 함께였다. <청주농악>은 옷다리 가락으로 앞치배, 뒷치배, 매편놀이, 개인놀이, 집단놀이를 거의 갖췄다.



▲ 태극놀이

청주농악은 가락이 다소 투박하고 박자가 빠르며 쇠소리 잔가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장단의 변화가 빨라 생동감 있게 진행돼 신명난다. 상쇠 개인 놀이가 화려한 것도 특징이다. 또 치배를 중심으로 한 기수, 잡색도 발놀음이 빨라, 진법도 다양하게 논다.

이런 청주농악은 기수와 치배, 잡색으로 구성된다. 기수는 기를 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치배는 악기를 치는 무리, 현대 공연단의 악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잡색은 여러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입고 치배 뒤에 있는 무리를 말한다. 이들은 각기 할 일이 있다. 기수는 농기와 영기 한 쌍을 든다. 치배는 호적수, 쇠, 징, 북, 장구, 법고잡이(법고잡이라고 부른다)가 있다. 잡색은 양반, 가장녀, 중, 포수가 있다. 잡색은 역할에 맞는 복장과 소도구를 갖춘다.

이들은 진법도 다양하고 빠르게 짜서 움직이지만, 머리에 쓴 상모가 특색이다. 진법놀이 중 태극놀이는 청주농악의 특색으로 치배가 바깥 원을 만들고 상쇠가 벽구를 이끌어 태극을 만드는 진법이다. 쇠치배는 머리에 부들상모(돌모)를 쓰고 법고잡이는 채상모를 쓰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고깔을 쓴다. 상모를 머리 뒤통수에 세워 쓰며, 상모를 돌릴 때 소고를 허리 밑에서부터 시작해 머리 위로 올리는 전통 소고춤을 화려하게 구현한다.

청주농악이 지역의 문화에만 기여한 것은 아니다. 사회의 모든 변화에 함께 했다. 대표적으로 삼일만세운동이 있다. 지동마을 토박이들에 의하면, 기미년 삼일운동의 만세를 부를 때, 군중을 모으기 위해 청주농악패가 쇠전거리에서 풍물을 쳤다고 한다. 이 일은 당시 지동마을 훈장이던 송재인(宋在寅)의 의견으로, 이원삼과 전병수가 중심이 되어 농악을 펼쳤다고 한다.

광복 후에는 <걸립농악>, <마당밧기>, <안택매귀굿>과 같은 의식농악은 말할 것 없고 전문적인 '예능농악'으로도 발전하였다.

### **박자에 말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한국사람 중 풍물 소리에 흥이 돌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물 가락에 맘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발을 맞추며 농사를 짓던 우리 선조들은 농악에 농요를 실어 보냈다. 농요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충북지역 농요 중 그 전통을 잘 계승한 농요는 중부 지역의 <진천 용몽리농요>, 남부 지역의 <영동 설계리농요>, 북부지역의 <충주 마수리요>가 있다.

### **미호천 들노래, 진천 용몽리 농요**

진천 용몽리농요(鎭川龍夢里農謠)는 진천군 덕산면 일대인 대월들, 물골들, 옥골들에서 농사를 하면서 전래되어 온 농요이다. 용몽리와 산수리 일대에서 행해져오던 것이 현재는 용몽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진천 용몽리농요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논뜯는소리>가 전한다. 농요의 가창방법은 한 사람이 메기면 농사꾼 전체가 후렴구를 받으며 부르는 형식과, 선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단계마다 부르는 형식이 있다. 가락은 미호천 유역의 음성, 청주 특이 넓은 들을 형성하고 있는 미호천 유역 들노래의 특성을 잘 전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설은 은근하게 이어져 일의 과정과 동작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모찌기는 논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모를 몇 포기씩 움켜잡아 뽑은 후 단을 만드는 작업이다. 엄지손가락으로 중심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짝 펼쳤다 모으면서 모를 뽑는다. 이때 부드럽게 리듬을 주며 뽑아야, 모 뿌리가 상하지 않고 부드럽게 뽑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리듬감을 유지하기 위해 모찌기 소리는 가락과 사설을 넣는다.

모심기는 모를 심을 논에 모를 찢 단(모찢)을 던져 놓고, 줄을 맞춰 여러 사람이 합동해서 심어야 하는 작업이다. 줄을 넘기는 사람이 가창하거나, 가창만 하는 선소리꾼이 있기도 하다. 줄을 넘기면서 합동 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여러 사람이 박자에 맞춰 방향을 일치시켜야 “줄 넘어요” 할 때, 빈 곳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을 수 있다.



▲ 2008년 용몽리 주민들이 모를 찢면서 모찌는 소리를 부르는 모습

<모찌는소리>는 모내기 첫 단계로, 노동력의 절반이 소용될 정도의 힘든 일이다. 따라서 지치고 힘든 농부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후렴구가 특징이다. 모찌는 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렴 : 뭉치세 ~ 뭉치세 ~~~~ 이 모판으로 ~ 뭉치세

- 이 모판으로 뭉칠 때는 세 놈쯤 자리로 뭉쳐주오

- 열 마지기 이 논배미에 여기저기 던져놓고

- 일심협력 노력하여 농사 한철 지어보세

-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더 있는가

- 칠년 대한 저 가물에 앞 뒤 청산 저 빗줄기 만인 인간이 춤을 춘다.

모찌는 단계가 끝나면 <모심는소리>로 이어진다. 눈을 쓰래질한 후에 모내기가 시작된다. 이때 ‘모진 애비’는 모침을 운반해주고 양끝의 ‘줄잡이’가 작업의 균형을 잡아주며 <모심는소리>가 이어진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렴 : 야기도 ~ 허하나 ~~~ 저허 ~ 저기도 ~ 또 하나

- 듨성듨성 꽃더라도 삼배출 짜리로 꽃아주오
- 울울창창 자란 벼는 장잎이 청청 영화로다
- 고개숙여 패인 벼는 농부님네 희망일세
- 연년 오는 호세월에 농부님의 대풍일세
- 덕산 덕문 큰 방죽에 연밭 따는 저 큰애기
- 연밭 줄밭 내 따 줄게 이 내 품에 잠자주오

모가 자라면 <논매는소리>가 이어진다. “어하 호호 예하 호호오”라는 후렴구를 통해 자라는 모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수확이 잘 되기를, 식구들이 평안하길 소원하며 논을 뽑으며 농요를 부른다.

후렴 : 어 ~ 하 ~ 호 ~ 호 ~~~ 에 ~ 하 ~ 호 ~ 호 ~ 오

- 산천초목은 녹색이요 구시월단풍은 붉은 꽃 푸른 잎이 청산속에 화춘이라
- 청춘에 늙은 몸이 단풍조차 잇을소냐 금수강산에 곱게곱게 수놓았네
- 구시월 단풍은 산천초목 물들이고 대한민국 넓은 땅에 황금들판 되어 있네
- 연년이 오는 세월 농부님네 힘든 농사 대풍작을 이뤄주소
-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지어
-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효도 충성 하오리다



▲ 논을 매는 작업을 하며 논매는 소리를 하는 증평 장들 주민들 모습

모심은 논에 모 뿌리가 활착하면 논뜯기 작업이 시작되며 <논뜯는소리>는 논이 풀을 뜯듯이 뽑아야 작업이 수월해서 ‘논을 뜯는다’고 말한다.

후렴: 울~노을~노을~~~상~서~되야  
-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아 있네  
- 네가 무슨 반달이니 초생달이 반달이지  
- 서산에 지는 해는 동쪽 하늘 바라보며 밝은 노을 망강에 영화로다  
- 신농씨가 가른 밭에 오곡백과 심어 놓고 세세만년 국태민안 대풍대작 이뤄주소

<진천용몽리농요>는 타 지역의 농요와는 달리 수확 시기에 행해지던 마당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낫을 사용해 벼를 베는 작업진행이 더디어져 수확놀이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중원(中原) 색채**  
**<충주 마수리농요>**

<충주 마수리농요>는 마수리 마제마을은 박혁거세의 40세손인 박중화(朴仲華)를 시조로 하는 운봉 박씨(雲峯 朴氏) 집성촌이다. 이 집성촌에 괴산군 출신의 지남기가 1960년대 이주하면서 <마수리농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지남기에 의해 농악과 농요, 메기는 소리를 시작했다. 즉, 괴산군의 농요와 충주시의 농요가 한데 어우러져 그 색깔을 빚낸 것이다. 또 인근지역인 강원도 농요와 영향관계를 형성해 ‘아라성’, ‘대허리’, ‘절우자’ 등 중원(中原) 색채를 띠는 농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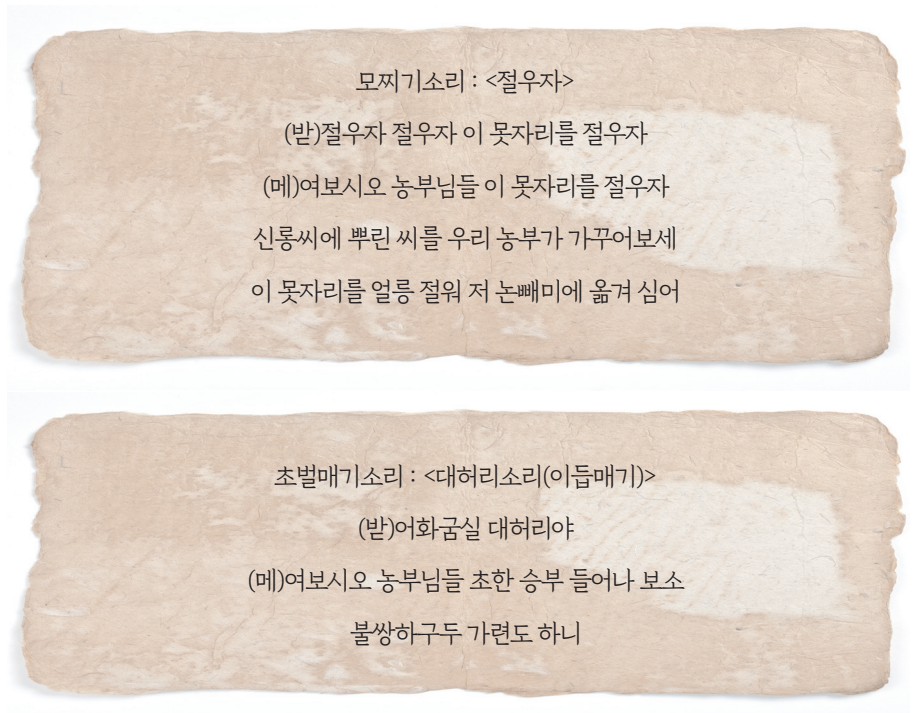
충주 마수리 농요는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긴방아, 중거리방아, 자진방아타령 등이 전한다. 진천 용몽리농요에 없던 수확과정이 농요로 구성되어 있다. 방아타령은 벼를 짚을 때 긴방아타령으로 시작해서 중거리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 마수리 주민들이 벼를 베어 타작하고,  
수확하는 작업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농요는 부르는 사람 즉, 가창자에 따라 노랫소리도 달라진다. 남성이 부르는 농요는 <절우자>·<아리성>·<긴방아>·<중거리방아>·<자진방아>·<대허리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부녀자가 부르는 여성요는 <진방아>·<중거리방아>·<자진방아>·<갈 뜯는 소리>가 있다. 이 중 남성이 가창하는 모를 찌면서 부르는 소리 <절우자>와 처음 논을 매는 초벌매기 소리, <대허리소리>를 소개한다.



**남부 산간 영동  
설계리농요**

산간(山間)에 위치한 전형적 농촌인 설계리는 구수동·눈어치·어미실(魚尾室)의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리를 중심으로 부르던 농요 중, 모찌기, 모내기, 논매기의 작업 때 부른 농요로 구성되어 있다. 영동 설계리농요는 1975년도의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소리 구성과 사설, 가락의 특색을 갖췄다. 1996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에 힘쓰고 있다. 충북 남부 지역인 영동은 옛날부터 여성이 모내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설계리농요의 모찌고 모내는 소리의 선소리꾼은 서정숙(徐貞淑)이다. 영동 설계리 농요는 ‘모찌는 소리’, ‘모내는 소리’, ‘초벌 매는 소리’, ‘두벌 매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모찌는소리>는 앞소리꾼이 매기는 소리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설을 만들어 대꾸하듯이 부르는 특징이 있는 교환창이다. 이 가창방식은 경상도 지역의 정자소리 가창방식과 유사하다. 영동 지역이 경상도와 인접해 있어 영향관계에 놓인 까닭이다.

<모찌는소리>와 <모심는소리>는 가락이 유사하다. 가사만 바꾸어 부르고 있다. 모찌고 모심을 때는 무후렴의 노래를 선소리꾼과 모꾼들이 교대로 부르며 모를 찌고 심는다.

<초벌매는소리>는 앞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한 가락과 사설로 받는 소리를 하는 메기고 받는 방식이다. 장단은 중모리장단인데 한 박자씩 늘어 부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초벌소리는 손양기가 메기다, 그 아들인 손정무가 이어받아 메긴다. 받는 소리는 ‘어러허구 저허러구 하하네, 에헤이야 산이가 저허러구 하네’이다. 영동설계리농요의 초벌 논매는 소리는 후렴구로 농요를 나눌 때 ‘잘하네’형 이다. 이 잘하네 후렴구 농요는 충북의 남부 지역인 영동군·보은군·옥천군 등지에서 자주 불렀던 농요이다.

<두벌매는소리>는 손으로 저으며 매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벌매는소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부른다. 가창방식은 앞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한 가락과 사설로 받는 소리를 하는 메기고 받는 방식이다. 장단은 굿거리장단이다. 메기는 소리는 마을에서 청이 좋은 사람이 맡아한다. 두벌소리 선창자는 서병종이 메겼다. 선창자가 소리를 메기면 다른 농꾼은 받는 소리를 하며 가락을 맞춘다. 받는소리는 “어러구 저러구 한다”이다.



▲ 2016년 설계리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모내는 소리는 부르는 모습

충북의 농악과 농요는 그 지역의 특색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삶의 노고와 애환, 기쁨, 소원 등을 가락과 사설에 담아 예술화한 것이다. 지금은 찾아보고 힘든, 애써서 전승해야 할 전통이다. 전통은 그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현대에 닿을 수 있다. 왜, 무엇을 남기고 전승해야 하는지, 아는 만큼 문화적 힘이 생길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www.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www.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s://www.aks.ac.kr>)

## 충북의 영화제

윤정용(문학평론가)

다른 지역이 그런 것처럼 충북 지역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화제가 있다. 그중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문화재단 등 관이 주최하는 영화제도 있고, 시민단체, 시네마테크, 영화동아리 등이 주최하는 영화제도 있다. 민간 사단법인이 주최하는 영화제도 있다. 이 짧은 글에서 충북의 모든 영화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각 유형에 해당하는 몇몇 영화제를 통해서 충북의 영화제를 훑아보려 한다. 더 나아가 충북의 영화제가 직면한 문제들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살펴보려 한다.

관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영화제로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충북세계가족영화제, 충북국제무예 액션영화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영화제들은 대체로 관이 개최하거나 주관한다. 아니면 관이 개최하고 학교 또는 민간 전문 기관에게 주관 기관으로 선정한다.

먼저,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1999년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청주지부 주최로 2004년 ‘청주시 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당시 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우수 단편영화 초청 상영회’와 미래의 영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청주시 청소년 영화제작교실’이 있었다. 이후 영화제의 명칭은 2006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청주시 디지털 단편영화제, 2013년에는 ‘청주국제단편영화제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국제단편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2019년도에 이루어졌다. 청주 시민과 함께 점점 성장하는 영화제라는 뜻의 ‘점, 점, 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2020년에는 111개국 2,807편의 영화가 접수되며 비약적인 성장의 신호탄을 올렸다. 2021년에는 새로운 로고 변경을 진행했고 122개국 4,050편의 영화가 접수되었다. 영화제 운영위원회는 외적 성장과 더불어 내실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영화 선정, 디자인 자문, 기획 총괄 부문에 운영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청주국제단편영화제는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되어 한 번 더 도약했다. 운영위원회는 “저물어가는 팬데믹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영화인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눈부시게, 그리고 더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25개국 5,128편의 영화 중 최종 60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경쟁 섹션은 사회드라마, 코미디멜로 · 호러 · 멜로, 애니메이션 ·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올해 신규 개설된 시스프 시네파운데이션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비경쟁 섹션은 올해 신규 파트너십을 맺은 영화제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 언성 보이스를 초청한 섹션인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 특별 섹션: 언성 보이스’ 섹션과 지역에서 제작된 ‘네트워크 시네마’로 구성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올하 즈후르바 감독의 <운동화>(2021)와 스위스의 바냐 빅터 카비르 토그놀라 감독의 <춤추는 남자>(2020) 등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세계가족영화제다. ‘영화를 통한 가족의 소통’을 지향하는 충북세계가족영화제는 충북에서 유일한 가족영화제로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 모두가 한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영화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충북세계가족영화제는 ‘충북예술제’의 일환으로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아 청주에서 운영되는 지역영화제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 충북세계가족영화제는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부 회원 및 청주대학교 영화학과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세계가족영화제는 ‘가족 모두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출품작을 공모하고 출품된 작품으로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영화제 프로그램은 ‘국내단편초청작’, ‘해외단편초청작’, ‘사전제작지원작’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충북국제액션무예영화제다. 충북국제액션무예영화제는 ‘무예와 액션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영화제’다. 2019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세 차례 치러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67개국 556편의 작품이 출품되며 국제영화제로서 위상을 높였다. 올해 4월에는 집행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며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제를 ‘젊고 역동적인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 충무로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영화감독, 배우, 영화제작사 및 연예기획사 대표 등 젊은 영화인들을 집행위원으로 영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 영화 <고통을 못 느끼는 남자>(2018)의 한 장면. 이 영화는 고통을 못 느끼는 남자 수리야가 정의를 지키는 여자 수프리와 함께 위기에 처한 사부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일당백 액션 코미디’다.

충북국제액션무예영화제를 주최하는 충북문화재단은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기환 감독을 집행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 오기환 감독은 영화 <선물>(2001), <작업의 정석>(2005) 등을 연출했고 지난해에는 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영화제를 통해서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충북문화재단 이시종 이사장은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영화계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국내외 22개국의 장·단편 영화 70여 편을 영화관, 야외상영관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상영하고 액션배우 와이어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6.1지방선거 이후 신임 김영환 충북지사가 “무예 관련 모든 일정과 행사에 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예’를 테마로 한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도지사의 이 선언 이후 영화제 관련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영화제가 지역과 영화제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영화제 고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세수로 재정 부담 부분을 충당되고 있다. ‘지역민이 당연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이익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지역 예술계와 영화인들은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가 폐지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제 총감독을 맡은 김윤식 청주영화인협회 회장은 “다른 도시의 국제영화제 10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여러 비판 속에서도 3년을 잘 끌어온 영화제”라며 “영화제 초기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번에 영화제를 접게 된다면 충북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앞으로 다시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었던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뉴스에서 사라졌다.

청주YWCA는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의 후원으로 여성주의 가치 확산과 성인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충북여성영화제’를 개최한다. 2022년 올해는 ‘우리의 세상을 함께 짓는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삶 속에서 각자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싱타는 여자들>(김정영 · 이혁래, 2020), <정순>(정지혜, 2021), <오마주>(신수원, 2021), <코다>(선 헤이더, 2021), <더 노비스>(로런 헤더웨이, 2021), <말임씨를 부탁해>(박경목, 2022), <스펜서>(파블로 라라인, 2021), <어거스트 버진>(조나스 트루에바, 2019), <허셀프>(필리다 로이드, 2020) 등 총 9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은 1970년대 평화시장 소녀 미싱사들의 어제와 오늘을 다시 그려낸 영화다. 개봉 전부터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을 포함한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제22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우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영화는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여성들의 소망과 투쟁의 순간들을 빼곡히 기록한다.

<정순>은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영향권 안에 자리하는 영화로 중년여성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고 있다. 동네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정순은 세월이 역척스러워질 법도 한데 그 이름처럼 정순하게 살아간다. 그런 정순에게 공장 동료이자 또래인 영수가 다가온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며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즐긴다. 영수는 정순과의 관계를 휴대폰 카메라로 담는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영수가 찍은 영상을 본 것이다. 그 영상을 본 딸은 자신이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정순은 “모두 내 일이니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소리친다. 내면의 괴로움, 딸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자존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은 그녀를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끈다.

올해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미싱타는 여자들>의 김정영 감독과 신순애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정순>의 시네토크이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김정영 감독과 신순애 배우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세대를 넘는 연대와 감동을 전했다. 충북여성영화제 담당자는 <정순>의 “팝콘톡 테이블을 통해 서로의 영화 소감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시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네마테크는 “영화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그 자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상영관”이라는 점에 있어 일반 개봉관 극장과 다르다. 필름 영화들은 상영 종료 후 필름 창고에 보존되었다. 홈비디오 개념이 없던 시절 상영이 종료된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재개봉관이 유일했다. 영화 산업의 특성상 팔리지 않을 법한 영화들은 일반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네마테크는 그런 약점을 보완해 상영 종료되었거나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을 선정해 상영하는

영화관이다. 이런 미개봉작을 상영 또는 재상영하는 기획, 강연회, 대담을 통해 영화의 가치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네마테크의 기획 영화들은 시네마테크 상주 프로그램머가 결정한다. 블록버스터로 대표되는 상업 영화도 상영되지만, 대체로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비상업 영화들이 상영된다. 시네마테크는 필름을 수집, 보존, 그리고 복원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시네마테크는 ‘영화 도서관’이자 ‘재개봉관’이라 할 수 있다.

시네마테크는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화인 앙리 랑글루아와 조르주 프랑주가 만든 영화 클럽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 클럽은 아직 복원과 발굴 개념이 없던 시절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았거나 묻힌 영화들을 발굴해 상영했고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로 발전한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누벨바그와 카이에 뒤 시네마 출신 감독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시네마테크 열풍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프랑스 문화원이 최초의 시네마테크로 거론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네마테크의 출발은 1990년대 초반 ‘문화학교 서울’에서 비롯해 서울아트시네마와 부산시네마테크 등이 등장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전, 광주, 대구, 강릉, 제주, 청주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각 지역의 시네마테크는 전용관을 중심으로 ‘영화 보기’ 운동을 펼쳤고,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일명 ‘한시협’이라는 전국 규모의 단체도 형성했다.

홈비디오가 등장하고 파일 형태로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다소 입지가 좁아졌지만, 시네마테크는 영화를 상영할 뿐만 아니라 수집, 보관, 복원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시네마테크로는 한국영상자료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의전당, 대전아트시네마, 광주극장, 강릉독립예술극장, 청주씨네오딧세이, 제주씨네아일랜드,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동성아트홀 등이 있다.

청주의 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는 카페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회원단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 ‘우리 지역에서 영화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단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으로 ‘영화를 통해 삶과 세계의 이해, 영화를 통한 담론 형성을 명시한다. 씨네오딧세이는 일반 영화 동호회와 다르게 특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일원으로 독립영화의 지역 확산과 ‘시네마테크’의 지역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1995년에 출범한 청주 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는 1996년부터 ‘야외영화제’를 시작으로 수많은 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시네마테크 전국 조직인 ‘한시협’에 가입함으로써 당시 수입되지 않은 예술영화와 희귀한 작품과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른 지역의 시네마테크와 연대하고 소장 자료를 공유하면서 순회영화제도 개최했다. 토요일 정기상영회와 자체적으로 기획한 영화제를 통해 지역 관객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영상문화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영화 보기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정기상영회’는 단체를 홍보하고 신입 회원을 확보하는 주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각종 감독전, 기획전, 장르전 등 영화제 기획의 기반이 되고 있다.



씨네오딧세이 카페 홈페이지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영화제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씨네오딧세이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2008년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필름라이브러리 순회상영: 세르지오 레오네 컬렉션'이라는 기획전이였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마카로니 웨스턴' 혹은 '스파케티 웨스턴'이라는 불리는 독창적인 영화 형식을 창조했고 웨스턴과 갱스터를 결합해 미국문화와 신화를 탐구했다. 그는 하워드 호克斯처럼 유희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장르영화를 변주했고 앨프리드 히치콕처럼 영화의 스타일을 완벽화한 순수영화를 만들어낸 작가다. 무엇보다 1960년대 유럽 모던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 합류하면서도 그 누구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 지극히 실험적인 작가가 어떻게 대중과 화해할 수 있는가의 성공사례를 보여주었다. 그 당시 장장 이틀에 걸쳐 거의 열두 시간 동안 <옛날 옛적 서부에서>(1968), <석양의 무법자>(1966), <석양의 갱들>(1971),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를 보았다.



▲ 영화 <석양의 무법자>의 한 장면. 이 영화는 총잡이 블론디와 범법자 투코가 우연히 20만 달러가 묻힌 묘지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 스파케티 웨스턴이다. 세르지오 레오네의 '무법자 시리즈'의 완결판으로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씨네오딧세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감독전, 기획전, 장르전 등의 영화제에 참가했고 수많은 영화를 보았다. 씨네오딧세이 영화제 감독전 또는 회고전에서는 구로사와 아키라, 오즈 야스지로, 이마무라 쇼헤이, 홀리오 메렘,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프랑수아 트뤼포, 장뤽 고다르, 클로드 샤브롤, 자크 타티, 장 피에르 멜빌, 빔 벤더스, 짐 자무시, 허우샤오셴,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존 포드, 테오 앙겔로풀로스 등의 영화 작가들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인디피크닉, 퀴어베리테, 빛의 영화들, 다양성영화 등의 기획전, 코디미, 액션, 멜로, 공포, SF,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전, 다양한 주제의 영화아카데미도 개최했다. 개인적으로 씨네오딧세이 영화제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본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영화가 ‘보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배우는 기쁨’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씨네오딧세이 영화제는 일깨워준다.

문화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보편성의 출발은 다양성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 있어 청주YWCA와 씨네오딧세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충북여성영화제나 씨네오딧세이 영화제와 같은 작은 영화제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 또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영화와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원스>(존 카니, 2007), <서칭 포 슈가맨>(말릭 벤젤룰, 2012), <치코와 리타>(페르난도 트루에바, 2010), <프랭크>(레니 에이브러햄슨, 2014), <에이미>(아시프 카파디아, 2015), <하늘의 황금마차>(오멸, 2014) 등 다양한 음악 영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해 왔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영화제 프로그램으로 많은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다.

제18회를 맞이한 2022년 올해는 제천을 상징하는 의림지 무대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비행장 무대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했다. 39개국에서 총 139편이 초청되어 역대 최대 상영작 수를 기록했다. 축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한 대표 음악프로그램 ‘원 씬머 나잇’, 새롭게 선보였던 ‘필름콘서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등을 통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제의 즐거움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쟁 부문 국제경쟁에서는 리타 바그다디 감독의 <사이렌>(2022)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바그다디 감독은 “나는 아랍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에 출연한 릴라스와 세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 <사이렌>은 중동의 여성 동성애자를 조명한 가장 첫 번째 다큐멘터리다. 그렇기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들의 용기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는 현재, 저는 진실을 위해, 꿈을 위해 두려움에 맞서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조명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리 세계프와 노아 디슨 감독의 공동 연출작인 <포저>(2021)는 심사위원 특별 언급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세계프 감독은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초현실적인 경험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고 많은 뮤지션들과 필름 메이커들을 만날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국 경쟁에서는 조하영 감독의 <언니를 기억해>(2022)와 권철 감독의 <버터내고 존재하기>(2022)가 각각 단편 작품상과 장편 작품상을 수상했다. 조하영 감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2년 동안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다. 함께 고생해준 스태프 분들과 배우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곁에서 많이 응원해준 주변 사람들과 맹수진 프로그래머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수상 소감을 남겼다. 권철 감독은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수상까지 하게 되어 너무 큰 영광이다. 이 고마운 에너지를 동력 삼아서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해외 게스트가 참석해 어느 때보다 더욱 다채로운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개막작 <소나타>(2018)의 감독 바르토즈 블라쉬케, 배우 미하우 시코르스키, 뮤지션 그제고즈 플론카, <포저>의 감독 오리 세계프, 노아 디슨 등이 참석했다. 영화제 프로그램 어드바이저인 마이크 피기스 감독은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선정한 영화를 설명하면서 관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 영화 <소나타>의 한 장면. 자폐 진단을 받은 그제고즈는 자신의 고립이자폐증이 아니라 청각 장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카진스키 교수의 도움으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익히고 음악적 재능까지 발견한 그제고즈는 콘서트 홀에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피아노 연주를 꿈꾼다.

해외 게스트 못지않게 국내 게스트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프로그램이벤트 ‘방준석을 기억하며’에서는 이준익, 류승완, 김용화, 심보경, 방준원 등이 참석해 영화 상영 후 관객들과 함께 고(故) 방준석 감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준석 감독과 함께 듀오 ‘방백’의 멤버로 활동한 백현진은 추모 공연을 선보이며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의 큐레이터로 선정된 조영욱 음악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2022)과 <갯 카터>(1971)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와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해 관객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이벤트 ‘히든 트랙’에서는 경쟁 부문의 한국경쟁 섹션, 다이나믹스 섹션의 감독과 배우가 토크와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히든 트랙에는 <Planet A>(2022)의 이하루 감독, 뮤지션 빌리카터와 이내, <오랜만이다>(2022)의 이은정 감독, 배우 방민아와 이가섭, <버터내고 존재하기>의 권철 감독, 뮤지션 최고은, 주소영, <디바 야누스>(2022)의 조은성 감독, 황덕호 재즈평론가,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피아니스트 임인건 등이 참여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장기 프로젝트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 포럼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었다. 올해는 한국 대중음악산업과 영화산업이 상생을 모색하며 ‘타이-인’(tie-in) 전략을 추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이 시기 한국 음악영화의 특수성을 풀기 위해 배우 겸 가수인 남진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영화를 살펴보는 등 한국 음악영화를 재정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오직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으로서 평을 받았다.

1970년대 한국판 ‘사운드 오브 뮤직’을 표방한 가족 밴드 작은별 가족의 이야기에서는 자전적 탄 풍경이 함께해 그 시절의 향수와 새로운 문화를 선사했다. 이 외에도 제천 시민 및 영화제 관객들을 위해 오픈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음악프로그램 씬머스테이지는 홀리쉽, 현희, 큐 더 트럼펫, 케첩, 리로드, 도체, 자키, 블루엘크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파티 형식의 심야 음악프로그램 클나이트 역시 홍이삭, 이짜나언짜나, 유토, 은코, 빅원, 딥사워 등의 공연이 진행되어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

재능 있는 신인 영화음악가를 발굴해 그들의 영상 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짐프 OST 마켓’ 피칭이 올해 처음 신설되었다. 영화계 각 분야의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진출자 5인은 100여 명의 산업 관계자,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수강생, 일반 관객들 앞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준비한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였다. 오디션 형식의 쇼케이스 짐프 OST 마켓 피칭은 영화음악의 미래를 보는 가슴 떨리는 순간으로, 영화음악인은 물론 영화산업이 기다려온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제 관계자는 향후 실질적인 매칭에 이를 수 있도록 영화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축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그리고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북세계가족영화제는 충북예술제에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아 청주에서 운영되는 지역영화제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부 회원 및 청주대학교 영화학과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충북세계가족영화제의 기획 및 성과는 지역영화제 가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영화제로 국내 유일의 무예 액션 영화제였다.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무예액션영화를 통해 무예, 무도, 무술의 핵심 가치인 삼재, 즉 하늘, 땅, 사람을 중심으로 무예 정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조명하고 점, 선, 면의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예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의 미적 가치를 탐구했다. 영화제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선보였다.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무예’와 ‘액션’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함으로써 단발성으로 사라져 버리는 영화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동안 장르 영화의 한 갈래인 무예 액션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 시키며, 이런 이미지의 확실성을 통해 영화제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국내 그리고 국제영화제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고,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울러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영화제의 결과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연구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 과거가 다시 현재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충북세계가족영화제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라면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정치 영역이 예술의 영역을 침범한, 예술이 정치 논리에 의해 매몰된 안타까운 사례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에서 ‘무예’와 ‘액션’이 문제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충분했는지, 하는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1996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국제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정동진독립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천안출영영화제, 금강역사영화제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색 있는 영화제도 개최되고 있다. 그중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폐지된 영화제도 있지만, 많은 영화제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역 영화제는 특화된 ‘장르’와 ‘주제’로 다른 축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까지 모을 수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 중 하나다. 국내 유일한 음악영화제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영화제를 통해 제천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문화예술 관련 산업적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제천 시민의 문화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적 특성인 자연 관광지와 전통시장, 지역의 명소를 발굴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영화제 지향, '문화 소외 계층의 영화 관람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 소비층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영화를 통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적은 예산으로 음악영화라는 좋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오고 있다. 그간의 쌓아온 노하우를 잘 전승하고 향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음악영화제로 인정받기 위해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지역의 문화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 영화제가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도록 지역, 영화제 사무국, 그리고 영화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잘 성장할수록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수록 오히려 소규모 영화제로서 독특했던 정체성과 색깔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영화제의 동반자적 관계성 설정, 즉 상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매력적인 주제와 소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화제가 영상문화는 물론 지역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롭게 기획되는 영화제 중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칸 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영화제만을 지향하며 몸집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영화제의 한계를 지역과 지역민 그리고 영화를 준비하는 사무국 전체가 분명히 공유하고,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되고 자기 정체성이 선명한 작은 영화제로서의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작은 영화제의 모범적인 롤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해 적용해간다면 영상문화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다.

## 충북학연구소 소식

### 2022년 제2차 충북학포럼 개최

2022년 제2차 충북학포럼이 11월 25일(금) 오후 2시~5시 30분까지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포럼은 ‘모밀꽃’ 시인 정호승의 삶과 시세계>란 주제 아래, 임승빈 청주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이덕자 작가의 시낭송으로 시작하여, 소종민 문학평론가, 장충덕 충북대 교수, 이광욱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세 명의 주제발표자와 김덕근 서원대 강사, 김경렬 충북대 교수, 김병구 충주학연구소장, 송선미 세종사이버대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1부와 2부 중간에는 충북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정호승 시집 「모밀꽃」 출간 기념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호승 시인의 장남인 정태준(전 충주여고 교장) 씨가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고, 테너 박경환 씨가 정호승 시, 정태준 작곡의 <모밀꽃 1>, <모밀꽃 2>를 불러 축하하였다.

이번 포럼은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충주문화원, 충북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였고, 1990년대 초반 정호승 시인과 작품을 처음 세상에 알린 서범석 교수를 비롯해 문학 관계자와 충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50년 월북한 이후 한국문학사에서 잊혔던 충주 출신의 정호승 시인을 세상에 다시 불러내어 그의 삶과 시세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제3차  
충북학포럼 개최**

2022년 제3차 충북학포럼이 12월 9일(금) 오후 2시~5시까지 괴산문화원 대강의실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을 맞아 “괴산지역 임진왜란 호국공신의 충절”이라는 대주제 아래 김시민, 김시약, 이광악 장군에 대하여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김근수 괴산향토사연구회 고문, 김봉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교수가 발제하고,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이 좌장으로, 조혁연 충북대학교 초빙교수, 주영서 증원대학교 교수, 이상기 중심고을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포럼은 충북학연구소와 괴산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괴산군부군수를 비롯한 지역민과 세 장군의 후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합동 토론회 개최**

충북연구원과 충북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월 13일(화) 오후 3시~5시 30분까지 충북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남인숙(해바라기예술센터 대표), 한용진(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윤정용(한국복지대학교 강사) 등 세 명의 주제발표자는 약 7개월 동안 조사 연구해 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기관 현황,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 2022년 현재 충청북도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실태를 자세하게 살피고 진단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혜(다사리학교 행정부장), 윤소현(문화예술전문인력), 이영미(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사), 정찬연(증평장애인복지관장), 조우리(장애인문화나눔 누리터 대표), 한규량(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승호(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물론 나아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정책에까지 폭넓게 토론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효과가 매우 좋은 데 반해 현장은 시설, 예산, 강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향후 장애인 관련 정책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